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1.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감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1-6).

(다같이) 하나님이며.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406장

대표기도 / (1부) 윤진태 안수집사 (2부) 이상혁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열왕기상 19:1-8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로렘 나무 아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God is Present Even Under the Broom Tree.) / 전종남 목사

찬 송 / 539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20장, 435장 기 도 / 최영종 안수집사

성경봉독 / 레위기 19:19~25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Living Differently in the World.) / 전종남 목사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04장, 449장

성경봉독 / 디도서 3:9~15

말 씀 / “피할 것은 피하고, 힘쓸 것은 힘쓰라.”

(Avoid the Unprofitable and Pursue Good Work) / 전종남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에스겔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박영미 집사	윤성태 장로	한희숙 집사

예배 위원

8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헌금	문미경	최영종 이영희 전복희 유경순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상영(박용분) 김성태(김득복) 김신영 김춘예 김형문(신승희) 유경순 유남순 윤결태(김연주) 윤성태(강현주) 이상혁(송미숙) 윤태향 홍영진(김영덕B) 홍종덕 무명1 3여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상영(박용분) 김성태(김득복) 김성태(김득복)-여름성경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김효열(김도형) 문상필 심상현 엄상희 유경순 유남순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결태(김연주)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혜숙(강현주)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조찬양 홍영진(김영덕B) 홍우표(윤명란) 홍종덕 무명1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선교헌금	박용분 유경순 윤결태(김연주) 홍영진(김영덕B)
구제헌금	홍영진(김영덕B) *부서헌금: 유초-중고
교육헌금	김상영(박용분) 김춘자 유경순 윤결태(김연주) 이상혁(송미숙) 홍종덕 무명1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7. 26.)

주님께 닿는 믿음 (막5:25~34)

전 종 남 목사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은 물론,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1.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27-28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며,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을 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품고, 수많은 군중을 헤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2.믿음의 손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29-30절).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밀치는 접촉과,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는 접촉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간절한 손길입니다.

3.예수님은 치유보다 더 큰 선물인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32-34절).

예수님은 여인을, “딸아.”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치유를 넘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영혼의 구원과 참된 평안(shalom)을 선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과 참된 평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